

필리핀 電子産業의 現況과 展望

— 輸出入 動向을 中心으로 分析 —

朴 泳 福
KOTRA 마닐라 貿易館長

산업용 전자제품과 같은 기술집약적이고 고도 기술산업으로 전자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최근 신흥 공업국들의 급속한 전자제품 수출 증대는 많은 선진제국들로 하여금 수입규제를 야기시켰다. 저개발국가들에 대해서는 무역 및 신용편의의 이용이 제한된 반면, 이들 신흥 공업국가들에 대해서는 쿼터제도가 부과되었다. 신흥 공업국들은 선진제국이 소비재 전자제품에 대해 수출쿼터제를 부과하자 아찔경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고부가가치와 기술집약 분야의 산업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추세에 비하여 필리핀의 소비재 전자산업은 최근에야 비로소 완제품 소비재 전자제품의 제조, 수출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고용효과 및 높은 부가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반도체 관련제품 및 그밖의 전자부품은 1981년 이후 필리핀의 비전통적 주종 수출품목으로 되었다. 정부가 소비재 전자제품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필리핀의 소비재 전자산업은 신흥 공업국들의 소비재 전자산업에서 고도 기술산업으로의 전환단계의 공백상태를 경우에 따라서는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1. 개황

소비재 전자산업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비록 많은 기술과 자본이 선진제국들로부터 이전되고 유입되었지만 전자산업은 개도국들로 하여금 강력한 국내시장 기반이 없는 상태하에서도 급격한 산업화를 가능케 하였으며 또한 수출확대를 가능케 하였다.

1970년대 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과 같은 국가들은 값싼 노동력, 투자특혜 부여 및 자유신용 창출 등으로 서구제국들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이들 신흥 공업국(NICS)들은 소비재 전자산업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컴퓨터, 통신장비 및 기타

2. 전자산업의 연혁

필리핀에 있어서 소비재 전자산업의 역사는 1930년대 후반 몇몇 외국 회사들이 필리핀에 투자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필리핀내 국내조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든 전자기기 및 설비는 수입되었고 국내업체들은 오직 서비스, 보수 및 판매분야에만 종사하였다. 1960년대 정부의 소비재 전자제품 보호법률 제정은 기존 회사들로 하여금 제조업분야로 전환토록 촉구하였다.

1975년 투자국(Board of Investment : BOI)은 Electronic Local Content Program(ELCP)에 의거 26개의 라디오, 무선전화 및 TV 세트의 조립업자들을 인가했다. 동 프로그램은 특히 중소기업의 국내 원재료 및 부품 생산, 가공능력의 대폭적인 증대를 통해 전자산업의 수출 능력을 확대시키도록 계획되었었다.

첫해에 13개의 부품, 부분품 및 기기가 최소

本稿는 東南亞의 電子産業國으로 서서히 浮上하고 있는 필리핀 電子産業 구조 및 輸出入, 政策, 우리나라와의 貿易 관계 등에 대하여 現地 KOTRA 마닐라 貿易館에서 많은 統計, 資料를 수집 분석한 것으로, 同國에 대하여 情報의 빈곤을 느껴오던 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한의 국내 품목으로 지정되었다. 그 다음해에 5개의 품목이 추가되었지만 부분품 및 제품 생산업체들이 직면한 기술 및 생산상의 어려움으로 그 이상의 부분품이 동 리스트에 추가되지는 못하였다.

1982년 이후 투자국은 자본과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국내 소비재 전자산업의 유일한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동 프로그램을 수정해 왔다. 1980년대 정부의 외부 지향적인 산업화 전략의 채택으로 국내 제조업자들에게 대한 광범위한 보호는 국내시장에서 외국 경쟁자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해외시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점차 축소되어왔다. 현재, 소비재 전자산업은 정부의 수출전략 품목 및 시장개발 전략에 의거 수출 우선산업으로 책정되어있다.

3. 전자산업의 구조

필리핀에 있어서 전자산업은 크게 3개분야 즉, 소비재 전자산업, 반도체산업, 산업용 전자산업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1983년까지 30개 업체의 소비재 전자업체와 42개의 반도체 업체 및 마이크로회로 부품 제조업체 및 2개의 산업용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있다.

가. 소비재 전자산업

소비재 전자산업은 라디오, radio-phonos/stereo, 카세트 레코더 및 TV 세트와 광범위한 오디오 및 비디오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동 분야의 제조업체들은 외국 유명메이커와 합작투자 혹은 기술이전 협정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또한 기술 Know How를 습득하게 되었다. 모든 업체들은 최소한 1,000만 필리핀 달러의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데 대개 일본, 미국의 유명 회사들과 합작투자를 하고 있다. 필리핀인 단독소유 기업은 외국회사들과 라이선스 협정을 맺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소비재 전자산업업체들은 본사 및 공장을 Metro Manila내에 두고 있는데 이는 원부자재 공급 및 시장개척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나. 반도체산업

반도체 산업은 필리핀 전자제품 수출의 선

두 주자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 IC, Light-Emitting Diodes(LED), Semiconductor Devices, Transmitters, Metal Can transistors, SCR, Silicon Diodes And Rectifiers, Liquid Crystal Display, Printed Circuit Board And Memory Planes를 생산하고 있다. 필리핀의 반도체 제품 제조업체는 대부분 미국 유명 회사들의 보조공장들로서 소수 업체만이 라이선스를 취득, 제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산업용 전자제품

동 산업에는 2개의 등록된 업체가 있는데 이들은 Photographic Flash Bulbs, Electricity Igniter, Variable Capacitors, Parts And Accessories, Circuit Breaker Parts 및 그밖의 전기램프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4. 전자산업의 특징

가. 소비재 전자산업

필리핀의 소비재 전자제품 생산은 각종 전자부품 조립, 반조립, 부품, 악세서리 및 케이스 등의 생산으로 되어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수많은 주요 부분품을 제조 공급하고 있지만 기술 및 원재료의 대부분은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종 소비재에 대한 제품의 분배는 통상 전국 각지에 판매망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소비재 전자제품 생산은 「PEPCEP」 즉,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추진계획(Progressive Export Program For Consumer Electronic Products)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앞서 기술된 것처럼 소비재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외국 유명 메이커와 합작투자 혹은 라이선스, 상표 도입을 통해 생산기술, 경영기술 등을 습득하고 있으며 외국업체와의 기술이전 협정은 생산공정, 디자인, 제조기법, 원재료 및 상표 등에 있어서 한가지 혹은 그 이상의 기술이전을 커버하고 있다.

모든 기술도입은 기술이전국(Technology Transfer Board : TTB)에서 기술조건 및 경제적 유익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동 협정서 사본을 기술이전국에 제출해야

하며 기술이전국은 정기적으로 기술협정에 대한 감독 및 조정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 윤리는 국내 기술도입은 그들의 협정기간 및 조건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품 디자인 혹은 원재료 근원의 수정 및 변경은 외국의 모회사 혹은 특허권자와 상의하여 행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 외국인들은 국내제조 업체들에게 기술, 경영기법 및 최근의 해외기술, 디자인 및 생산 동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 전자제품 제조에 있어서의 경비구성을 보면, 전체의 72%는 원재료 획득에 지출되고 있으며 운영비 11%, 감가상각비, 기타 간접경비 등 제조경비 9%, 노임 4% 및 기타로 되어있다. 원재료 획득에 있어서 국내 소비자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Loudspeakers, Cabinets, Chasses, Printed Circuit Boards, Coils, Transformers, Cabinet Accessories, Antenna, Hook-Up Wires And Power Cords, Yoke(컬러용 제외), Flyback(컬러용 제외), Tuners, Fasteners And Other Hardware, Solder And Plastic Parts 등과 같은 국내에서 획득 가능한 부품을 이용토록 촉구되고 있다.

나. 반도체 산업

반도체 산업은 필리핀의 전자산업 중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로서 1983년 현재 42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업체가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쟁의 및 기타 경제적인 요인으로 도산하였으며 현재는 30개의 업체가 가동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은 대부분 필리핀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진출한 외국회사의 보조공장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모회사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고 가공후에는 모회사가 지시하는 시장에 재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내업체들은 가공후 재수출한다는 조건으로 수입관세를 지불하지 않는 보세창고에 원재료를 산적해 두고 제조하는 보세창고 제조방식에 따르고 있다.

다. 산업용 전자산업

산업용 전자산업체로는 오직 2개사가 투자국에 등록되어 있는데 Electronic Capacitors

And Film Capacitors를 생산하고 있다. 동 분야와 관련된 특별한 지침은 없으나 투자총괄법(Omnibus Investment Code)의 규정에 의거 투자국에 등록되어 있다.

5. 수요공급 동향

가. 수요공급의 요인

(1) 소비자 전자산업

국내시장에 있어서 소비자 전자제품의 수요는 인구증가율, 가계소득, 지방 전화사업의 범위, 소비자의 재정도 등에 기인하며 전자제품은 또한 가정의 이용률이 높다. 따라서 가계소득은 전자제품의 구매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이며 세대수의 증가는 소비자 전자제품의 잠재적 수요를 불러 일으킨다.

지방에 있어서의 소득수준은 국내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에 있어서의 농산물 가격에 직접 연관되며 도시 지역의 가계소득은 월급소득에 크게 밀착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 있어서 소비자 전자제품의 구매는 대개 연말 보너스가 주어지는 때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의 지방전화사업 확대정책 역시 소비자 전자제품의 판매기회를 결정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그 밖에도 소비자 전자제품의 구입에는 많은 현금 지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은행신용 및 그밖의 판매상에 의한 소비자 금융의 확대는 많은 가계 소비자들이 신용으로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전자제품 판매량의 75% 정도는 신용판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반도체 관련제품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 제품은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수요의 결정은 해외 수출시장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3) 산업용 전자부품

필리핀에서 생산되고 있는 산업용 전자부품, 부분품 역시 거의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출시장이 수요를 결정하는 요소로 되어있다.

나. 수요공급 동향

(1) 소비자 전자제품

1984년도 소비자 전자제품의 판매는 깊은 경제침체를 반영 대폭 감소하였다. 제2의 판매

품목으로 되어있는 냉장고의 경우 1983년의 19만9,800대에서 1984년도에는 전년비 49%나 감소한 10만2,000대에 머물렀다. TV 세트는 제 1위의 판매품목으로서 계속 상위 자리를 유지하였으나 판매실적은 16만 6,000대에 머물러 1983년도의 25만6,965대에 비해 35%나 감소하였다. 흑백 TV는 소득 수준이 낮은 농촌지역에서 많이 판매되었는데 농촌지역에서 판매된 소비자 전자제품의 대부분은 흑백 TV였다. 스테레오 전축 역시 대폭적인 판매 감소를 기록하였다. 즉, 1983년도에 1만3,652대의 전축이 판매되었으나 1984년도에는 전년비 38%나 감소한 8,400대 수준에 머물렀다.

소비재 전자제품 중 1984년도의 판매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된 품목은 전기밥솥(rice cooker)과 전기 스토브에 불과하였는데 이들은 각각 전년대비 26%, 12% 증가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1984년도 소비자 전자제품의 판매실적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1983-84년간 필리핀을 강타한 심각한 경제위기 때문이었다. 국내 제조업체들은 정부의 강력한 외환 제한조치로 원재료의 부족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투자국을 통해 제조업자들에게 생산량의 70%를 수출하여 달러를 획득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원재료를 수입할 외환을 거의 벌어들이지 못하였다. 더구나 국내수요 역시 수요자들의 계속적인 수요성향 감소와 과거 2년동안 전산업을 강타한

조업중단 혹은 건축으로 인한 수십만명 근로자들의 해고 등으로 급격히 감소되었다.

과거 3년간 (1982-1984) 주요 소비자 전자제품의 수요동향을 보면 표 1 과 같다.

(2) 반도체 관련제품

필리핀에서 생산된 반도체 관련제품은 거의 수출되고 있다. 1985년도 첫 4개월중 반도체 관련제품의 수출실적은 전년동기의 8,360만弗 대비 0.8% 감소한 8,290만弗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85년도 수출실적이 전년동기의 실적을 밑도는 것은 20개 반도체 제품 생산업체가 가동률을 15~20% 축소하였기 때문이었는데, 이들 업체는 금년초 건축 계획에 착수했다. 따라서 필리핀의 높은 실업률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로 반도체 제품의 세계적인 재고 과잉에 기인되었다.

반도체 제품의 세계적인 재고 과잉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생산능력을 확장해 온 필리핀 국내 관련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는 수출부진과 과대경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필리핀 업체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통계에 의하면 1984년도 중 필리핀의 반도체 관련업체들은 총 9억9,100만 필리핀 달러 (약 5,500만弗)를 투자하여 생산능력을 확충시켰는데 동년도의 외국인 투자는 4,000만弗에 달하였다.

(3) 산업용 전자부품

판매실적을 체크할 만한 특별한 데이터가 없어 정확한 판매실적은 알 수 없지만 산업용 전자부품 역시 기타 전자제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감안해 보면 대폭적인 수요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1 필리핀의 주요 소비자 전자제품 수요 동향

단위 : 판매수량기준 대

품 목	1982	1983	1984
Refrigerators	182,466	199,808	102,000
Television sets	235,890	256,965	166,000
Room airconditioners	50,784	n · a	22,000
Stereos	14,247	13,652	8,400
Freezers	19,036	24,143	11,700
Rice cookers	24,150	26,035	32,700
Electric stoves	105,119	139,734	157,000
Electric ranges	37,158	22,315	22,000

자료 : Consumers Electronic Products Manufacturers Assoc.

6. 수출입 동향

가. 수입 동향

(1) 소비자 전자제품

세계 각국 전자회사들의 수많은 신모델 및 상품개발과 함께 필리핀의 소비자 전자제품 수입 역시 1978-1982년 기간중 증가되어 왔다. 동 기간중 연평균 수입증가율은 30%에 달하였

으며 1982년도에는 총 수입실적이 1,012만弗(부품포함)에 이르렀다. 동 실적은 해외근로자 또는 거주자의 반입품, 남부지방의 바터 교역으로 들어오는 상품 등 비정상적인 교역채널을 통해 반입되는 물량을 제외한 것으로서 이러한 물량을 합친다면 수입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비디오 및 카세트 녹음기는 1981년 필리핀 전국 각 세관에서 압수된 소비자*전자제품 전체의 약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소비자 전자제품의 품목별 수입동향을 보면 상당한 변화를 보여왔다.

1978년에는 테이프 레코더, 휴대용 계산기, 음향기기 등이 주로 수입되었으나 1982년도에는 TV 세트, 비디오 레코더 및 음향기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음향기기는 고가품인 관계로 실적면에서 보면 역시 1982년도에도 대중 수입품목으로 남아있었다.

이와 같이 수입 품목이 변동을 보인 것은 테이프 레코더의 국내생산 확대, 계산기의 가격 하락 및 가정용 비디오 시스템 혹은 VTR에 대한 인기상승 등으로 인한 수입이 증대되었기 때문이었다. 각종 소비자 전자제품 중에서 비디오 레코더 및 TV 세트의 수입은 과거 5년간 가장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여 주었으며 반면, 건축 및 테이프 레코더 등의 수입은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해외거주자 또는 해외근로자들의 오디오 제품 반입 및 새로운 라디오 모델의 출현은 정상적인 오디오 제품의 수입을 감소시킨 요인들이었다.

한편, 1982년까지와는 대조적으로 1982-1984년 기간중 필리핀의 소비자 전자제품의 수입은 다음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조금씩 감소추세를 나타내었다. 1984년도에 수입이 급감한 것은 정부로 하여금 수입정책을 재조정하게 했던 심각한 외환위기 때문이었다. 전자산업에 대해서는 「No Export No Import」정책이 채택되었으며 국내 메이커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을 폐쇄하거나 조업을 단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속적인 폐소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소비자 수요감소로 더

욱 악화되었다. 이리하여 전자산업의 생산은 30% 수준으로 격감되었고 근로자의 50% 정도가 해고되었으며 수입 역시 86%나 감소되었다.

주요국별 소비자 전자제품의 수입을 보면 일본이 전체 수입의 28%를 점하여 최대의 수입대상국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2위, 홍콩 3위 그리고 대만이 4위로 되어있다.

1982-1984년간 필리핀의 주요국별 소비자 전자제품 수입동향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한편, 동기간 중 부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는 생산을 계속하고 있던 업체들이 정부의 소비자 전자제품 수출추진계획(PE-PCEP)에 편승하여 수입을 확대했기 때문이었다.

표 2 필리핀의 주요국별 소비자 전자제품 수입동향(82-84)

단위: US천弗

구분 주요국별	1982		1983		1984	
	금 액	셰어 (%)	금 액	셰어 (%)	금 액	셰어 (%)
일 본	1,703	28.7	1,813	27.7	893	60.2
미 국	383	6.4	780	11.9	204	22.2
홍 콩	768	12.8	403	6.2	103	11.5
대 만	2,736	45.7	231	3.5	2	0.2
기 타	390	6.5	3,324	50.7	45	5.0

자료: National Census & Statistics Office (NCSO)

1984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자부품의 최대 수입상대국은 미국이었으며 그밖에 일본, 홍콩, 대만 등도 주요 수입대상국이였다. 미국이 최대의 수입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미국이 필리핀의 최대 전자제품 수출시장이기 때문으로서 미국 바이어들은 보통 수입품(필리핀측 수출품)에 사용되는 부품의 품질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브랜드까지 미국제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일본, 대만,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의 대부분은 대 미국 수출품 제조에 사용되고

표 3 필리핀의 연도별 전자부품 수입 동향

연도별	구분	금 액	전년대비증감률(%)
1982		88,113,537	-
1983		148,050,527	68.3
1984		254,494,220	71.9

있는데 그 이유는 가격이 비교적 싸고 품질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2) 반도체 관련부품

반도체 관련 원자재의 수입은 동제품의 수출 신장과 함께 지난 3년동안 약간씩 증대되어 왔다.

연도별	구분	금 액	전년대비증감률(%)
1982		662,292,939	-
1983		740,916,622	19.1
1984		744,038,576	0.4

1984년도에 동 원자재의 수입이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증가폭은 아주 미미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증가폭이 작았던 것은 동제품의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이러한 반도체 관련 원자재는 위탁판매 조건으로 수입되고 있는데 완제품 가공후 재수출된다. 또한 이러한 자재는 모두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되고 있는 보세창고에 적치되어 있다.

표 4 주요국별 반도체 관련 원자재 수입 동향 (1982-1984)

단위 : US 弗

연도별 주요국별	1982	1983	1984
미 국	437,080,733	531,837,294	519,116,652
일 본	48,174,655	46,844,128	53,866,480
홍 콩	34,261,764	52,595,110	42,208,685
영 국	12,942,244	18,500,204	28,468,168
서 독	26,437,340	29,039,166	26,625,020
싱 가 폴	18,359,939	19,594,016	25,544,537
말레이시아	14,882,345	20,687,017	15,266,829
프 랑 스	3,759,707	6,721,367	6,489,481
한 국	561,550	1,422,142	2,557,065
네델란드	2,608,863	4,336,880	2,210,382
기 타	23,224,799	19,339,298	21,675,277
합 계	622,292,939	740,916,622	744,038,576

(3) 산업용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부품 수입은 앞서서 언급한 부품수입에 포함되어 있다.

나. 수출동향

(1) 소비자 전자제품

필리핀의 소비자 전자제품 수출은 지난 3년

간 매우 불규칙한 동향을 보여 주었다. 즉, 1982년도 동제품의 수출 실적은 598만3,000弗 이었으나 1983년도에는 전년대비 234%나 크게 신장된 1,997만8,000弗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4년도에는 전년대비 55%나 감소한 869만5,000弗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자산업을 달려 획득원으로 집중 발전시키기로한 정부의 소비재 전자산업 수출 추진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동 계획은 소비재 전자산업의 운영전략으로「No Export, No Import」원칙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국내업체들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수입해야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필리핀의 주요 전자제품 수출 품목은 라디오, clock radio, 테이프 레코더, TV세트, 라디오

표 5 필리핀의 주요 소비자 전자제품 수출동향 (1982-1984)

단위 : US 弗

연도별 품목	1982	1983	1984
Radios	7,55,731	9,764,437	4,196,044
Clock radios	4,659,251	6,258,016	651,923
Tape recorders	-	556,233	25,414
TV sets	25,500	83,000	47,472
Cassette recorders	521,771	3,104,809	1,121,038
Refrigerators	-	70,057	2,629,436
Table fans	-	80,399	-
Electric fans	-	55,724	4,387
Electric stoves	20,440	5,548	19,051

자료 : National Census & Statistics Office

표 6 필리핀의 주요 국별 소비자 전자제품 수출동향 (1982-1984)

단위 : US 천弗

구분 주요국별	1982		1983		1984	
	금액	쉐어	금액	쉐어	금액	쉐어
홍 콩	565	9.4%	9,852	49.3%	4,152	47.8%
미 국	3,579	59.8%	6,780	33.9%	2,121	24.4%
서 독	1,288	21.5%	2,216	11.1%	306	3.5%
기 타	551	9.2%	1,130	5.6%	2,116	24.3%
총 계	5,983	100.0%	19,978	100.0%	8,695	100.0%

자료 : National Census & Statistics Office

카세트 레코더, 냉장고, 선풍기, 전기스토브 및 전자렌지 등이다.

주요 수출시장은 홍콩, 미국, 서독으로서 동 3 개국에 대한 수출은 전체수출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개 위탁가공조건으로 부분품을 필리핀의 관련 회사에 제공하면 필리핀의 회사들은 이를 완제품으로 가공하여 부분품 제공국에 재수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탁가공은 특히 라디오, clock radios, 카세트 녹음기 및 테이프 레코더의 경우 더욱 활발하다. TV 세트, 냉장고 및 전기팬의 경우 국내 메이커들은 소비자 전자제품 수출 추진계획에 의거 해의 특허권자(라이센스 계약에 의거)로부터 부품을 수입, 국내에서 제조하여 30%는 국내에서 판매하고 나머지 70%는 원재료 수입에 필요한 달러 획득을 위해 수출하도록 되어있다.

(2) 반도체 관련제품

전자제품 중에서 반도체 관련제품은 필리핀의 대중 수출품목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필리핀 업체들은 생산 가공 부가가치인 노동력을 수출하는 격인 것이다. 지난 3년간 필리핀의 반도체 관련제품의 수출실적은 표 7 과 같다.

표 7 필리핀의 반도체 관련제품의 수출 실적

단위 : US 弗

구분 \ 연도별	금 액	전년대비증감률 (%)
1982	742, 225, 356	-
1983	747, 453, 676	0.7
1984	910, 040, 072	21.8

한편,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영국, 서독 및 홍콩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국별 수출동향은 표 8 과 같다.

표 8 필리핀의 주요국별 반도체 관련제품 수출 동향

단위 : US 弗

연도별 \ 주요국별	1982	1983	1984
미 국	349, 361, 968	359, 327, 738	397, 983, 663
싱 가 폴	52, 378, 419	53, 065, 378	208, 243, 218
말레이시아	146, 958, 004	139, 095, 854	120, 444, 751
영 국	34, 275, 637	41, 291, 972	51, 544, 882
서 독	48, 791, 777	44, 192, 153	45, 492, 030
홍 콩	18, 070, 826	22, 034, 607	30, 309, 160
프 랑 스	9, 385, 245	10, 060, 214	12, 031, 338
한 국	13, 507, 961	13, 022, 681	9, 383, 539
대 만	10, 122, 505	8, 146, 883	5, 213, 654
일 본	37, 119, 979	8, 574, 260	5, 142, 439
네델란드	9, 670, 405	39, 596, 267	3, 645, 314
기 타	12, 538, 630	9, 045, 669	20, 606, 084
총 계	742, 225, 356	747, 453, 676	910, 040, 072

자료 : National Census & Statistics Office

(3) 전자부품

반도체 관련 제품을 제외한 필리핀의 전자부품 수출실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은 TV 부품, 라디오 부품, 전기팬 부품, 냉장고 부품 및 그밖에 transistors, printed circuit board and resistors 와 같은 산업용 전자부품 등으로 되어있는데 연도별 수출실적은 표 9 와 같다

표 9 필리핀의 연도별 전자부품 수출 실적

단위 : US 弗

구분 \ 연도별	금 액	전년대비증감률 (%)
1982	159, 297, 978	-
1983	206, 120, 653	29.4
1984	360, 506, 410	74.9

전자부품의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서독, 일본 및 네델란드로서 1982-1984년간 주요 국별 전자부품 수출실적은 표10과 같다.

표10 필리핀의 주요국별 전자부품 수출동향
(1982 - 1984)

단위 : US\$

연도별 주요국별	1982	1983	1984
미국	57,982,489	123,355,265	198,782,072
싱가폴	4,504,866	5,591,716	11,798,765
말레이시아	1,327,744	7,885,146	33,750,167
홍콩	22,662,581	13,320,294	13,805,493
일본	5,082,533	8,620,143	14,119,620
네델란드	41,833,689	25,888,809	25,077,777
하와이	184,367	3,900,278	36,562,652
서독	857,683	524,878	9,055,325
기타	24,862,026	17,034,124	17,554,539
총계	159,297,978	206,120,653	360,506,410

자료 : National Census & Statistics Office

7. 전자산업 관련 정부시책

필리핀 정부는 집중적인 산업화 전략에 의거 산업합리화 및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많은 조치를 취하였다. 외환 통제 및 고관세 정책과 같은 국내산업 보호적 정책은 점차 제거되고 있으며 국내제품과 수입상품에 대한 차등세율 적용도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있다. 전자제품은 또한 필리핀의 수출추진 전략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7대 수출 품목의 하나로 되어 있다. 비록 전자제품 수출의 대부분은 반도체 관련 제품 및 부품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완제품 소비재 및 산업용 전자제품의 수출도 상당히 희망적이다. 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필리핀 정부가 채택한 주요 정책들 가운데 전자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추진계획 (Progressive Export Program For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 PEPCEP)

PEPCEP로 알려져 있는 동 계획은 1984년에 종래의 국내전자제품 수급계획(Electronic Local Content Program)을 개선, 발전시킨 것으로서 국가 외환획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재 전자산업을 합리화하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능한한 빠른 기간 내에 수출제품 제조능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동 계획은 TV수상기, 라디오 수신기 및

phonographs/gramophones tape recorders /stereos, car radios/stereos, video cassette recorders 및 이들 품목의 복합체 등 sound/video reproducing appliances, 그밖의 투자국(Board of Investment : BOI)에 의해 지정될 수 있는 소비재 전자제품을 커버하고 있다. 동 계획의 참여대상은 기존의 소비재 전자제품 제조업자(이전 국내 전자제품 수급계획에 의거 증명서가 발급된 자), 투자국에 등록된자로서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소비재 전자제품 제조, 수출업자 및 소비재 전자제품용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전자부품, 부품품 제조업자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동 계획의 수행을 위해 투자국은 다음과 같은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1) 투자국은 동 가이드 라인의 이행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동 계획 참여자의 모든 수입행위를 심사한다.

(2) 동 계획 참여자의 수입은 수출생산 산업의 개발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것이다.

○1984년 : 1982년 및 1983년도 동 계획 참여자의 연평균 외환 지출의 85%까지

○1985년 : 동 계획 참여자의 1982년 및 1983년도 연평균 외환 지출의 60%까지

○1986년 및 그 이후 : 동 계획 참여자의 1982, 1983년 연평균 외환지출의 25%까지

(3) 투자국은 동 계획 참여업체가 국내시장 판매용 원자재, 부품 및 부분품의 추가 수입을 요청할 경우 수입요청 연도에 동 신청자가 소비재 전자제품부품 및 그밖의 부품품 수출로 획득한 순수 외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중앙은행에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수입 한도는 순외환 보유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순외환이란 FOB수출금액과 원재료, 부품, 부분품(국내 수입업자 및 무역업자로부터 획득한것 포함)의 수입 총비용과의 차액을 의미한다.

(4) 투자국은 또한 동 계획 참여자의 수출용 소비재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및 부분품의 추가수입 요청을 중앙은행에 추천할 수 있다.

(5) 신규 참가자는 연간 총 생산량의 70% 이상 수출조건으로 동 계획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한 국내판매용으로 할당된 부분에 대한 외환 소요량이 순외환 가득액으로 충당되고, 투자국이 동 계획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이행 보증금 및 기타의 보증을 만족할 경우 투자국이 기존의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비율만큼 수출하겠다고 약속하면 동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6) 라디오 수신기, sound recorder or re-producer를 갖춘 라디오 수신기, jukeboxes, amplifiers and videos cassette recorder 등 phonographs/gramophone의 수입은 중앙은행공시 제854호의 전기, 전자제품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

(7)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수출하는 동 계획 참여자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는 조건으로 보세가공창고제도(bonded manufacturing warehouse scheme)을 이용할 수가 있다.

(8) 매년 3월과 9월말에 동 계획 참여자들은 하반기의 수입을 위해 거래은행에서 발행한 전반기의 수입 현황 보고서 및 기타 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참여자가 투자국이 요구하는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투자국은 중앙은행에 수입 추천을 해주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9) 만약 CKD 및 부분품의 코스트, 수출판매액, 제조경비 및 순외환 가득액 등을 고의로 허위 보고하였을 경우 수입 특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나. 1982년 관세규정

수출확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소비재 전자제품, 부품 및 부분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지난 3년간 점차 인하되어 왔으나 이러한 관세인하 작업은 1985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대체적으로 부품 및 부분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원재료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으로 완제품에 비해 더욱 큰 폭으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역시 국내업체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산업 개방으로 인하여 되었다.

다. 내국 세제 재정비

정부의 내국세 체제는 이전에 국내 소비재 전자제품 제조업자들에게 강력한 보호수단을 제공했었다. 수입 전자제품에 대한 고세금 부과는 국내 제조업자들을 만족하게 하였지만

국내산업과 해외 경쟁산업과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그리하여 보다 현실적인 내국 세제 개편이 요청되었고 또한 GATT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수입 및 국내 제조 소비재 전자제품간의 세금 격차를 점차 철폐해 왔다.

조세구조의 재정비는 당초에 1982년말까지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었으나 국내 제조업자들이 1984년까지 동 계획의 실시 시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는 동안 수입전축, 테이프 레코더, 카스테레오 및 기타 전자제품에 대한 조세는 총판매가격의 40%에서 25%로 인하되었다.

한편, 국내제조 오디오 제품에 대한 조세는 1,000페소미만이 10%이고 1,000페소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세 137.50페소와 1,000페소 초과금액 차액에 대해 25% 부과세를 부과한다(중전은 일률적으로 7%). TV 세트의 경우 세금은 판매대금의 1,900페소 미만까지 10%를 부과하고 1,900페소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세 235페소와 1,900페소 초과금액의 25% 부과세를 부과한다.

라. 중앙은행고시 제850호, 854호

현재 필리핀 정부가 추진중인 산업재편성 계획은 수입자유화를 포함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고시 850호를 통해 소비재 전자제품, 기타 선정된 비필수품(관세분류상 : NEC item) 및 분류되어 있지 않은 소비재 품목(관세분류상 : UC item)의 수입에 필요한 외환은 사전 승인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공인 에이전트 은행에 허용하였다. 지금까지(중앙은행 고시 제 850호 이전)는 NEC 및 UC의 품목에 대한 수입은 신용장이 개설되기 전 그리고 외환이 할당되기 전에 먼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상공부는 제한된 국내시장 여건으로 국내 업체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음을 감안, 외국 경쟁자의 진출로 인한 국내 시장질서 혼란을 최대도로 방지하기 위해 몇몇 선정된 소비재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 현황을 면밀히 체크해 왔다. 그 결과 중앙은행 고시 제854호를 통해 각종 TV수상기 수입신청은

중앙은행의 신용장 개설 승인에 앞서 스공부에 조회를 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라디오, 건축, 테이프 레코더 등 그 밖의 모든 소비재 전자제품은 상공부 사전 조회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국내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마. 중앙은행 고시 제1017호

전자산업과 관련된 또 하나의 규정은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추진계획 참여자의 소비재 전자제품 제조용 원재료, 부품 및 부분품의 수입은 중앙은행 고시 제 979호의 조건과 절차에 의한다고 규정한 중앙은행 고시 제1017호이다. 중앙은행고시 제979호는 중앙은행의 「No Export, No Import」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Progressive Car Manufacturing Program(PCMP) 참여업체에만 적용되었으나, 그후에 Progressive Truck Manufacturing Program(PTMP) 및 Progressive Motorcycle Manufacturing Program(P MMP) 등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동 「No Export, No Import」 정책에 의거 자동차 메이커의 수입대전은 수출에 의한 순수 외환 가득액으로만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바. 중앙은행 고시 제1029호

소비재 전자산업에 대한 정부가 취한 조치 중 가장 최근의 정책은 중앙은행 고시 제1029호이다. 동 고시는 필리핀의 경제회복계획의 실행지침에 의거 발행된 대외무역의 기본지침서로 간주되고 있다. 동 고시에 의거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추진계획의 참여자는 소비재 전자제품 제조, 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 부품 및 부분품의 수입은 투자국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8. 문제점 및 건의사항

폭넓은 수출도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전자산업은 수년동안 동산업의 운영을 저해해 왔던 많은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세계시장으로의 발돋움할 수 없을지 모른다. 기술혁신과 경제단위가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본원칙인 만큼 필리핀 정부와 사기업은 기술의 현대

화, 생산비용의 감소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 의해 수출촉진을 기하기 위해 종래 수입대체산업으로 추진코자 했을 것이며 장기적인 금융이용 및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이러한 재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다음은 필리핀의 전자산업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들을 간추려 본 것이다.

가. 기술 및 생산시설

필리핀의 소비재 전자산업은 처음부터 국내시장을 겨냥해서 계획되었다. 동 산업의 생산력은 국내 시장규모에 의해 결정되어 왔으며 생산기술 수준은 국내 수요자 등의 선호와 취향에 의해 결정되고 국내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다양한 모델과 상품을 생산해야만 했으며 따라서 국내 시장 수요량에 따른 압박과 전문화의 부족으로 인해 극히 소수의 업체만이 규모의 확대에 따른 잇점을 향유할 수가 있었다.

한편, 신기술 혹은 신모델의 도입은 로열티 및 라이선스, 장비훈련 및 원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수반하였으며 이러한 투자는 동 산업의 lifecycle이 매우 짧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쉽게 보상되어 질 수가 없었다. 결국 국내 소비재 전자산업은 생산품목 및 제조능력에 있어서 경쟁국인 신흥 공업국들에게 뒤지게 되었다.

따라서 소비재 전자제품의 치열한 국제경쟁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필리핀의 전자산업은 최신의 국제 동향과 품질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의 개선과 생산기술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세계시장에 대한 소비재 전자제품의 공급업자가 계속 증가됨으로서 소비자들은 그들의 구매에 있어서 더욱 선택적이고 더욱 차별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조기술 및 생산수준은 생산비용, 판매가격, 기업의 이윤을 결정하는 강력한 요소가 되었다.

소비재 전자산업의 급속한 성장속도를 고려해 볼때 수요가 줄어들기 전에 시장을 이용(돈을 벌기위해)하기 위해서는 최신의 생산기술을 채택하는 것이 국내 제조업자들을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구형의 생산 및 방법에 대한 기술획득이 값싼지는 모르나 신기술의 습

특이 국제시장에 맞는 제품의 출하와 대량생산을 위한 장비, 부품 및 원재료의 수급을 원활하게 해 줄 것이다.

따라서 필리핀의 소비재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무역에 경험이 풍부한 외국업체들과 합작투자 혹은 기술제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추천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술이전 협정은 국내업체가 제품을 자체생산하여 선진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조항과 기술 및 인력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훈련조항이 삽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이 신흥 공업국들의 소비재 전자산업의 특징이었다. 즉, 이들 국가들은 이렇게 하여 습득한 기술을 개선시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다양화하여 스스로 수출하고 있다.

제조장비의 선택은 필히 경비 혹은 품질상의 막대한 희생없이 상품의 변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쉽게 조작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필리핀은 선진국 및 신흥 공업국들에 비해 비교적 인력면에서 잇점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인력과 기계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성은 여전히 생산단위의 선택에 있어서 주요한 결정요소가 되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만으로 생산성의 효율성을 기할 수는 없다. 소비재 전자제품 생산에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다시 말해 공장 생산능력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경제단위의 이용도에 좌우되는 기술능력이 더 중요시된다.

나. 부분품 및 원재료

1975년 이후 완제품 제조업체들은 국내 후원산업의 개발을 위해 국내제조 부분품의 이용을 점차 확대하도록 강요받아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부품 및 부분품의 원가는 품질, 성가 및 외관면에서 수입상품보다 높고 좋지 못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또한 국내 부품제조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규모가 인력양성 및 장비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소비재 전자산업의 기술발전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 국내 부분품의 사용확대 강요는 오히려 높은 생산비 및 국내 소비재 전자산업의 기술적 핸디캡만 가중시켰다.

따라서 국내 완제품 생산업체들은 소비재

전자제품 제조경험의 계속 축적과 함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배양해 가면서 외국 부분품 및 원재료를 도입할 수 있게끔 인정해 왔다.

이와 같은 선택적인 수입자유화는 신흥 공업국들이 고도 기술산업으로의 방향전환으로 인해 개방되어 있는 시장 쉐어를 확대할 기회를 잃지 않고 인력을 양성할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국내산업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 후원산업은 고용확대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점차 강화,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원자재버가 생산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볼때 국내 부품의 사용은 가격, 생산계획, 시간전략 및 국내 구입으로 인한 재정, 금융적인 면에 있어서 국내 완제품 제조업체들에게 더욱 융통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 판매

소비재 전자산업은 상품의 lifecycle이 짧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필리핀의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실적은 세계시장에서 필리핀이 소비재 전자제품의 공급국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에도 실패할 만큼 보잘것 없었다. 신흥 공업국들이 소비재 전자산업에서 고도 기술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 소비재 전자산업은 해외판매 및 분배를 위한 더욱 조직적인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 및 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동산업부문 및 정부의 집중적인 해외시장 및 조사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전자산업은 신흥공업국들이 컴퓨터, 로봇 공학 등과 같은 고도 기술산업 개발로 점차 밀려나고 있는 노동집약적인 저기술 상품에 더욱 집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도 고도 기술산업 부문과 마찬가지로 세계시장 쉐어를 획득하는 것은 시장의 감수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정부지원

적극적인 수출활동 추구를 위한 국내 업체들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재 전자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반도체 관련제품 제조업자들에게 대해서는 조세감면, 통관상의 편의 제공 및 노동쟁의의 금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소비재 전자산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필리핀과는 반대로 신흥 공업국 정부들은 소비재 전자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비록 신흥 공업국들이 채택한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필리핀의 정책과 같기는 하지만 이들 국가는 성장산업의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재정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전략적인 생산, 수출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전문 훈련기관 및 연구기관 설치를 통해 동 산업의 연구개발 증진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따라서 필리핀 정부도 소비재 전자 산업을 1980년대 수출우선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동 분야의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추천되고 있다.

-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추진계획에 의거 요구되는 원자재의 국내제품 사용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정책은 새로운 잠재적 시장이 개방되고 있는 이때 가장 적절하다. 국내의 부품제조업자들은 국제적 표준규격과 규모의 상품을 아직 생산할 수 없다.

- 기술이전에 관한 정부정책은 국내 기술혁신 및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생산부문에 대해 대대적인 훈련을 통한 기술습득을 취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기술이전 협정은 국내 회사들이 외국 전문가들의 최소한의 감독으로 필요한 숙련과 전문성을 습득한 후에는 철폐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야 할 것이다.

- 또한, 동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수입장비 및 원재료에 대한 세금면제 또는 감면, 장기저리의 금융지원 등 편의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동 제품들은 국내수요는 크지만 세계시장에서는 발돋움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국내 업체들은 수출신장을 위해 새기술 및 장비의 도입과 공장시설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마. 밀수관계

현재 동 산업에 있어서 시급한 문제의 하나는 국내시장에서 동 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밀수에 대한 통제이다. 소비재 전자제품의 불법적 유입은 관세 및 일반세 미징수로 인해(탈세) 정부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제조업자들이 해외시장에서 효과적인 경쟁과 국내시장에서 경쟁의 국 상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입소비재 전자제품과 밀수품에 대해 통제 및 조정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9. 전자산업의 전망

가. 소비재 전자산업

케소화의 계속적인 평가절하와 환률의 불안정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구매우선순위를 재조정토록하게 했으며 결국 전자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사치품의 하나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이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동 산업은 계속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재 전자제품 가격은 오르는 커녕 오히려 수요의 급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전 최신형 Sony Video 가격은 1만 2,000필리핀 달러에 판매되었으나 현재는 7,000 ~ 8,000필리핀 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더우기 정부의 「No Export, No Import」정책이 변경되지 않는 한 국내 메이커들은 원재료 수입에 필요한 외환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공장 폐쇄의 압력을 더욱 받게될 것이다. 소비재 전자제품의 수출은 최저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수입 역시 부진한 실정이다.

나. 반도체 산업

필리핀의 반도체 관련제품 수출은 세계시장의 재고과잉으로 금년도에 약2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년 첫 4개월 동안 반도체 관련제품의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의 8,360만弗보다 줄어든 8,290만弗에 머물렀다. 수출부진으로 20개 반도체 관련제품 제조업자들은 15~20% 축소 생산을 하고 있으며 금년초부터는 긴축 경영체제로 돌입했다.

따라서 실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세계 시장의 재고과잉은 필리핀 국내 제조업자들의 과도한 판매증가계획에 의한 생산시설 확대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한편, 필리핀 반도체 산업의 장래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제품 조립용 자동기계(로보트)의 도입이다. 이미 Fairchild Semiconductors사는 자동화에 착수했으며 그 밖에도 많은 제조업체들이 머지않은 장래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기술은 동남아 지역에 있어서 거의 손으로 하던 작업을 자동화 기계로 대체했다.

자동화 기계는 어린아이의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 칩을 용접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기법은 반도체 조립업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되돌려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동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수작업의 경우 동남아 제국의 근로자들은 한시간에 120개의 집적회로를 접착할 수 있는 반면, Fairchild사의 34대 자동화 기계 중 한대가 한시간에 640개의 집적회로를 접착할 수 있다. 한 사람이 8대의 기계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작업량은 무려 시간당 5,120개에 달한다. 따라서 총 제조경비에서 점하는 노동의 비중은 기타의 부문에 비해 매우 적다. 수송비와 기타 경비를 감안해 볼 때 아시아 제국의 공장들이 미국과 같이 자동화 되어있다 하

더라도 미국에서 조립하는 것이 아시아에서 조립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것이다.

10.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수출 전망

현재와 같은 환경하에서 동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및 부품, 부분품의 수출전망은 매우 어둡다. 특히, 수출은 통상거래 단위이기 때문에 신용장 개설을 통한 수입은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소규모의 물량 즉, 컬러TV 또는 VTR 몇대 정도의 수출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소량 주문은 aircargo로 선적되고 대금은 전신환으로 지불되고 있는데 세관직원과 사전 약속으로 공항을 통해 밀수 형식으로 수입된다.

필리핀의 현 외환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부터 부분품을 계속 수입하는 바이어가 있다. 그는 한번에 3,000~5,000弗정도의 부분품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항공편으로 공급받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즉석에서 행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매우 편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입량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동 시장에 대한 수출확대 전략의 하나는 수출용 제품생산을 위해 현지의 업체와 합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비재 전자제품 수출 추진계획에 합작투자를 통해 진출함으로써 조립용 CKD, 원자재 및 부분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기술, 좋은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필리핀의 업체들과 합작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